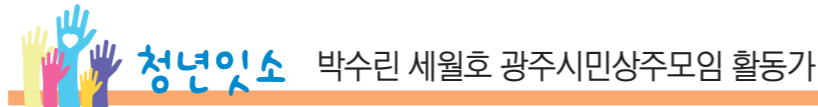


# 초등생서 청년으로... '세월호 12년'과 함께하다

이번 '청년잇소'의 주인공은 박수린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 한국화 전공하며 '광주시민상주모임' 활동 병행 "참사 잊지 않는 기억·행동 더 나은 세상 만든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한국화와 2학년에 재학중인 박수린이라고 합니다. 본캐(원래 모습)는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부캐(평소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는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의 활동가로 1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소개와 하고 계시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2014년에 '유가족과 3년상을 함께 치른다'는 마음으로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이름으로 생겨났습니다. 이후 19개 마을 촌동이 생기고 매주 각 마을에서 촌동을 들고 진상규명 활동과 범인 앞 진실마중길 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7년 아직도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진실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기에 전체회의를 통하여 이름을 '광주시민상주모임'으로 변경하고 활동하며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 팽목항역순례 등 각자의 영역에서 기억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활동은 엄마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피켓팅을 함께 했던 게 가장 많았는데요. 안전에서 가족분들이 오시면 마중 나가기도 하고 천일순례, 촛시, 진실규명집회 또 팽목항 순례길에 함께 걸으며 팽목 벽화에도 참여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활동이 벽화 그리기였어요. 벽화를 그리면서 정말 덥고 힘들었는데, 제가 그려놓은 벽화가 팽목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스함을 줄 수

있는거 같아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12년이 됐더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며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땐 어린이였는데, 청소년기도 함께 보내고 지금은 성인이 되었네요.

### 어린 시절 엄마 손 잡고 팽목항 벽화 그리기

-활동을 처음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른 새벽에 엄마를 따라서 밖으로 나갔는데 세월호 십자가 도보순례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간식을 준비해 가서 나눠드리면서,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힘든 순례를 하는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마음 아프고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엄마와 함께 저도 같이 광주에서 대전까지의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걷는 분들께 사탕을 나눠드렸는데 저를 보고 웃어 주시며 인사하고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에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낯설던 그 길 위에는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고 손잡아 주신 상주모임 분들이 계

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원동력이 돼 주셔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안전에서 열린 9주기 기억식에서 '10주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약속과 다짐' 선언문을 낭독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참사가 일어났던 때 단원과 학생들과 같은 나이인 고등학교 2학년, 18살이었던 때였는데요. 제가 같은 나이가 되어보니 그때 참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정말 많이 어렸었고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확 와닿았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얼마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을까?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크게 와닿아서 304개의 삶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을 뵈 땀면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겹치면서 선언문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고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청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나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학동 참

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왜 예방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위험한 환경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참사들은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과 효율을 우선으로 하는 규칙과 매뉴얼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참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참사를 목격하고 경험한 제 또래들은 여행을 하거나 그냥 길에 다닐 때도 문득 불안감이 커질 때가 있기도 한데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안전한 나라 꿈꾸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 개인적인 목표 등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필연이 된 광주시민상주모임에서요. 그리고 활동 중에 여러 미술 작가 선생님들의 작품을 접하게 되면서 그림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한다면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같이 또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박민국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장



팽목항에 벽화를 그리고 나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선언문 낭독 모습.



세월호 기억 순례길 활동 모습.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